

- 1) 영문초록 저자정보 누락
- 2) 목차 III 제목, 본문에서는 제목의 영문이 국문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맞으신지요?
- 3) 표2~5는 본문 내 인용표기 없으신데 없이 가시는 것 맞으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원본 원고에 수정해주시면 안 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정은 PDF에 주석메모로 달아주시거나, 정오표 형태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불교학』 제118집, 000-000쪽

서울: (사)한국불교학회, 2026.5.31

DOI URL <https://doi.org/10.22255/JKABS.118.00>

초기불교 경전에서 산냐(*saññā*)의 인식론적 전이 구조 - *sañjānāti*에서 *pajānāti*로의 서술적 이행을 중심으로 -

하 대 용(까따담모)

동방문화대학교 명상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수료

gatadhammo@naver.com

I. 서론

II. 산냐의 인식론적 기초

III. *sañjānāti*에서 *pajānāti*로의 전이 구조

IV. 결론

요약문

본 연구는 초기불교 경전에서 범주적 재인식(*sañjānāti*)에서 직접 앎(*pajānāti*)으로의 인식론적 전이가 경전 서술에 어떻게 내장되어 있는지를 문헌학적으로 규명한다. 중심 분석 대상인 「뿌리에 대한 범문경」(MN 1)의 동사 분포 분석을 통해, 범부(*puṭhujjana*)의 *sañjānāti* → *maññati* 연쇄가 '개념 증식(*papañca*)'의 인식론적 기제임을 실증하고, 바른 사람(*sappurisa*)의 '수승하게 안다(*abhiñjānāti*)' 구조는 이 증식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 앎임을 확인한다. 분석은 세 가지 독립적 텍스트 지표—(1) 인식 동사 유형, (2) 산나 대상의 명시 정도, (3) 개념 증식(*papañca*) 동사의 분포—를 기준으로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sañjānāti*의 범주적 재인식이 약화될수록 개념 증식이 감소하고 직접 앎이 전경화되는 인식론적 전이 구조가 확인되며, 이 전이 구조는 「소공경」(MN 121)에서 산나의 단계적 초월과 개념 증식 기반의 소거가 동시에 수렴하는 서술 구조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산나(*saññā*)의 개념 정의에 집중하는 동안 다루지 않았던 경전 서술 구조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MN 1의 동사 분포가 인식론적 전이를 구조적으로 내장함을 실증하고, '개념 증식' 동사 분포를 독립 지표로 도입한 방법론적 기여를 제안한다. 나아가 경전의 동사 서술 구조가 수행론적 전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함을 확인함으로써, 경전 문헌학 연구의 방법론적 확장에 기여한다.

주제어

산나(*saññā*), 상자나띠(*sañjānāti*), 빠자나띠(*pajānāti*), 개념 증식(*papañca*), 전도(顛倒, *vipallāsa*)

I. 서론

1. 연구 목적과 문제 제기

초기불교 수행 담론에서 인식 동사의 서술적 배치가 수행 단계와 연동된다는 관찰은 선행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제기되었으나, 범주적 재인식(*sañjānāti*)와 직접 앎(*pajānāti*)의 대비 구조를 경전 서술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구는 이 공백을 메우되, 산냐(*saññā*, 想, 인식)의 개념적 정의가 아닌 경전 서술 구조 차원의 분석—인식 동사의 분포, 대상 명시성의 변화, 개념 증식 동사의 소거—을 통해 이 전이 구조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인식론적 전이 구조’란 실제 인식 과정의 심리적 변화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 서술 층위에서 인식 동사의 유형·분포·공기 어휘가 수행 단계에 따라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양상을 가리킨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인식 주체의 내적 상태가 아니라 경전 텍스트가 그 상태를 어떻게 서술하는가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텍스트의 서술 패턴에 한정되며, 이를 실제 인지 과정의 모델로 환원하지 않는다.

초기불교 경전에서 산냐는 오온(*pañcakkhandha*)의 구성 요소로서 기술적(記述的) 기능에 그치지 않고, 수행 담론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이중적 위상을 지닌다(상세는 II장). 그러나 산냐에 관한 기존 연구는 오온 체계 안에서의 개념 분석¹⁾이나 수행 맥락에서의 인지적 역할(Anālayo(2003))에 집중하며, 경전이 산냐를 어떻게 서술하는가—어떤 동사 유형·공기(共起) 어휘와 함께 나타나는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제한적이다. 김준호는 「포타파다경」(DN 9)의 “인식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긴다(*saññā kho Poṭṭhapāda paṭhamaṃ uppajjati, pacchā ñāṇaṃ*)”²⁾을 근거로, 산냐가 지혜

1) Hamilton(1996); Gethin(1998); Bodhi(1993).

(*paññā*)에 선행하는 인식론적 조건임을 논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 통찰을 경전 서술 층위로 확장하여, 상자나띠(*sañjānāti*)와 빠자나띠(*pajānāti*)의 동사적 분포가 텍스트 내에서 질적으로 구별되는 서술 구조를 형성함을 밝힌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탐구한다. 첫째, 초기불교 경전에서 ‘범주적 재인식(*sañjānāti*)’와 직접 앎(*pajānāti*)는 어떤 서술적 대비 구조를 형성하는가. 둘째, 이 대비 구조 안에서 산나는 전도·수정·초월의 서술 양태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셋째, 산나의 전이 과정은 ‘개념 증식(*papañca*)’ 동사의 분포 변화를 통해 어떻게 확인되며, 이 전이 구조는 쩌따나(*cetanā*, 의도) 서술 강도의 변화와 어떤 탐색적 대응 패턴을 보이는가. 첫 번째 질문은 「뿌리에 대한 법문 경」(MN 1)의 동사 분포 분석을 통해 답하며(III장 1절), 두 번째 질문은 AN 4.49·AN 9.16·AN 6.29·MN 121의 보조 분석을 통해 세 서술 유형을 확인하고(III장 2-4절), 세 번째 질문은 세 지표의 수렴 패턴을 종합하고, 쩌따나 서술 방식과의 탐색적 대응을 검토한다(III-5절).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중심 분석 경전은 「뿌리에 대한 법문 경」(MN 1)이다. 「일체경」(SN 35.23)·「삼켜버림 경」(SN 22.79)을 인식론적 기초 확인에, 「전도경」(AN 4.49)·「인식 경」(AN 9.16)·「우다이 경」(AN 6.29)을 보조 증거로, 「소공경」(MN 121)을 전이 구조의 귀결점 확인에 활용한다. 분석은 아비담마적 심소(*cetasika*) 분류 체계가 아닌 경전 서술 구조의 문헌학적 분석에 한정한다. 「꿀 덩어리 경」(MN 18)은 *sañjānāti*→*vitakketi*→*papañceti* 연쇄를 통해 개념 증식의 인지적 메커니즘을 명시하는 경전으로, 본 연구에서는 MN 1의

2) DN I. 185. 김준호(2011), 137.

sañjānāti→maññati 연쇄와의 구조적 대응 확인을 위한 비교 참조 경전으로 활용한다. MN 18의 전면적 분석은 별도의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긴다.

본 연구는 초기불교 경전의 빠알리 원문을 기준으로 분석하며, 경전 인용은 니까야 번호 체계를 따른다. 텍스트 확인은 PTS(*Pāli Text Society*) 판본을 기준으로 하였고, 디지털 접근은 SuttaCentral 및 Access to Insight 자료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초기 불교 문헌 연구의 해석적 성격에 근거한다. 함형석(2018)은³⁾ 텍스트를 독해하는 작업이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지적하며, 텍스트의 구성 요소를 분석할 때 모든 분석 행위는 근본적으로 해석적임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 해석적 성격을 인정하되, 세 독립 지표의 수렴이라는 삼각검증 절차를 통해 분석의 자의성을 내적으로 통제한다. 본 논문에서 전경(*foreground*)은 특정 개념이 텍스트에서 반복 명시되어 서술 초점을 형성하는 경우를, 배경(*background*)은 해당 개념이 전제되거나 암묵적으로 기능하지만 설명의 중심이 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Firbas(1992); Hopper(1979) 참조).⁴⁾ 주석서(*Aṭṭhakathā*)는 참조하되 의존하지 않는다.

분석은 서로 독립적인 세 가지 텍스트 층위에서 각각 하나씩의 지표를 추출하여 삼각검증을 수행한다.⁵⁾ 삼각검증은 상이한 텍스트 차원의 독립 지표들이 동일 방향으로 수렴할 때 분석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결론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다.

세 지표와 각각의 분석 층위는 <표 1>과 같다.

3) 함형석(2018), 50.

4) Mukařovský(1964), 17-30; Halliday(1994); Langacker(1987) 참조.

5) 삼각검증은 동일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복수의 방법론, 자료원, 이론을 결합하는 전략이다. Denzin(1978), 307; Torrance(2012), 111. 본 연구는 이 원리를 텍스트 내재적 지표의 수렴 검증에 적용한다.

〈표 1〉 삼각검증 세 지표

지표	분석 층위	내용 (전도 → 수정 → 초월)
지표 1	문법 층위	산나 관련 인식 동사 유형: <i>sañjānāti</i> (범주적 재인식) → <i>bhāveti</i> (수행 동사) → <i>pajānāti/abhijānāti</i> (직접 앎)
지표 2	서술 층위	산나 대상의 명시 정도: 범주적 대상 열거(MN 1의 24대상; AN 4.49의 4항) → 수행 대상 목록(AN 9.16의 9종) → 순차적 배경화(MN 121)
지표 3	어휘 층위	개념 증식(<i>papañca</i>) 동사의 분포: <i>maññati</i> 폭발적 증식(MN 1: 96회) → 증식 동사 부재·결과 동사만(AN 9.16) → 산나 배경화·증식 구조 해체(MN 121)

세 지표는 각각 문법·서술·어휘의 상이한 텍스트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추출되므로, 서로 간에 논리적 의존 관계가 없다. 특히 지표 1(인식 동사)과 지표 3(개념 증식 동사)은 모두 동사를 분석하나, 전자는 인식 주체의 행위 동사(범주적으로 재인식하다·닦다·직접 안다)를, 후자는 인식 결과의 파생 동사(~라고 생각하다·희론하다)를 추적하므로 분석 대상이 상이하다. 지표 1이 '수행자가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가'를 묻는다면, 지표 3은 '그 인식이 어떤 개념적 결과를 산출하는가'를 묻는다. 두 지표의 논리적 독립성은 반증 가능성으로도 확인된다. 만약 두 지표가 동일 패턴에 종속된다면, 상자나띠가 출현하는 모든 맥락에서 만냐띠(*maññati*, ~라고 생각하다) 연쇄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SN 22.79에서는 상자나띠가 산나의 기능 정의에 사용되지만, 만냐띠 연쇄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두 지표가 공변(共變) 관계가 아닌 독립 지표임을 경전 내부에서 확인하는 근거이다.

지표 2(대상 명시성)의 독립성도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된다. AN 4.49는 상자나띠가 전도 인식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대상 열거 방식이 MN 1의 24대상 전면 열거와 달리 4항 왜곡 구조에 한정된다. 대상이 명시된다는 사실(지표 2)이 곧 개념 증식(지표 3)을 수반하지

않는 사례는 AN 9.16에서도 확인된다. AN 9.16은 9종 산냐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만(지표 2 활성화), 만나며 증식 동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지표 3 부재). 이는 세 지표가 특정 서술 테마의 속성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분포함을 경전 간 비교로 확인한다. MN 1에서 두 동사가 범부 서술 내에서 연쇄로 나타나는 것은 특정 텍스트의 편집 의도를 반영하나, 이는 두 지표가 경전 전반에 걸쳐 독립적으로 분포함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본 연구의 유형 판정 절차가 도출된다: 인식 동사 유형(지표 1)·대상 명시성(지표 2)·개념 증식 동사 분포(지표 3)가 특정 경전 맥락에서 동일한 방향의 패턴을 형성할 때, 해당 서술 양태를 하나의 서술 유형으로 확정한다.

3. 선행연구 검토

산냐에 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축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오온 체계 안에서의 개념 분석이다. 해밀톤은 산냐를 감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식별적 인지로 규정하며,⁶⁾ 게틴은 산냐를 경험의 분류·식별 작용으로, 그리고 감각 자극에 직면했을 때 대상을 식별하는 재인식 작용으로 규정하였다.⁷⁾ 보디는 산냐를 대상의 표지(sign)를 형성하여 이전에 지각된 것을 재인식 작용으로 각각 규정하였다.⁸⁾

국내에서는 임승택(2007); 이필원(2015); 김준호(2003) 등이 업(*kamma*)과의 관계, 오온론 및 심소 분류의 틀에서 산냐의 인지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다른 하나는 수행 맥락에서의 산냐 해석이다. 아날라요는 무상상·부정상 등 다양한 산냐 수행이 인식 경향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강조하며,⁹⁾ 김준호는 산냐의 부정적 의미(전도의 기반)

6) Hamilton(1996), 57-58, 62.

7) Gethin(1998), 136.

8) Bodhi(1993), 80.

와 긍정적 의미(수혜의 토대)라는 두 축을 남북전 비교로 논증하였다. 특히 7가지·9가지 산냐가 수행 자체로 기능하며, 「포타파다경」(DN 9)에서 선정 단계마다 이전 산냐가 소멸하고 정제된 산냐가 생성되는 구조를 통해 산냐가 수혜(修慧)와 연관되는 지점을 제공한다는 분석은 중요한 선행 성과이다.¹⁰⁾ 박재은은 유/무유에 대한 갈애가 지각·인식(*saññā*)의 문제로 귀결됨을 지적하였다.¹¹⁾ 그러나 이들 연구는 산냐의 개념적 정의와 심리적 기능에 집중하며, 경전이 산냐를 ‘어떻게 서술하는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제한적이다.

곽정은은 「꿀 덩어리 경」(MN 18)에서 삼사화합(三事和合) 이후 느낌(*vedanā*) → 인식(*sañjānāti*) → 사유(*vitakketi*) → 희론(*papañceti*)의 연쇄를 통해 희론에 오염된 지각과 관념이 생성되는 구조를 분석하였으며,¹²⁾ 이는 본 연구가 MN 1에서 확인하는 ‘상자나띠 → 만나띠’ 연쇄와 비슷한 유형이다. 이 분석은 본 연구가 산냐의 서술 유형에 따른 제따나의 강도 변화를 수행론적 방향성과 연동하여 논증하는 데 뒷받침이 된다.

쿠안(Kuan)은 「꿀 덩어리 경」의 ‘사랑 분별이 함께 인식의 더미(*papañca-saññā-saṅkhā*)’¹³⁾가 산냐에 기원하며, 산냐가 인지 과정의 결정적 분기점임을 밝혔으며,¹⁴⁾ 또한 사띠가 산냐의 올바른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개념 증식으로의 전개를 차단한다고 논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념처(*satipaṭṭhāna*) 수행이 마음이 *sañjānāti*에서 *vitakketi·papañceti*로 진행되는 연쇄를 중단시키는 서술적 기제로 기능함을 지적하였다.¹⁵⁾ 이는 본 연구가 지표 3(개념 증식 동사의 분포)을 삼

9) Anālayo(2003), 228.

10) 김준호(2011), 120-121 (산냐의 두 축), 132-133 (7상·9상), 134-137.

11) 박재은(2021), 161.

12) 곽정은(2025), 118-119.

13) MN I.109-113(MN 18); 대림스님(2012), 1권, 484.

14) Kuan(2005), 204.

15) Kuan(2005), 196, 207-210; Kuan(2008), 22-24, 69.

각검증의 독립 지표로 설정하는 학술적 근거가 된다. 이 분석은 산나가 장애이면서 동시에 수행의 토대가 되는 이중적 위상을 지닌다는 본 연구의 전제를 독립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본 연구가 수정 유형(AN 9.16)에서 올바른 산나의 님음이 만나띠 증식 연쇄를 중단시키는 서술 구조를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방향의 독립적 근거가 된다.

한편 산나와 쩌따나가 경전 서술에서 어떻게 공기(共起)하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를 망라하여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 공백에 주목하여, 상자나띠에서 빠자나띠로의 인식론적 전이 구조를 규명하고, 이 전이 과정에서 ‘개념 증식’ 패턴과 쩌따나 서술 강도가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산나의 의미와 역할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경전의 서술 구조 차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이러한 연계 분석은 수행담론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산나의 인식론적 기초

1. 감각장과 인식의 최소 단위

초기불교 경전에서 산나의 인식론적 분석에 앞서, 산나가 작동하는 인식의 지형을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일체경」(SN 35.23)은 이 지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무엇이 일체(*sabba*)인가?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노(意)와 [마노의 대상인]법- 이를 일러 일체라 한다.”¹⁶⁾

16) SN IV.15(SN 35.23), 「일체경」(*Sabba Sutta*): 각목스님(2009), 4권, 111. “*Kiñca bhikkhave sabbaṃ? Cakkhuñceva rūpā ca, sotañceva saddā ca, ghāṇañceva gandhā ca, jivhāñceva rasā ca, kāyañceva phoṭṭhabbā ca, manañceva dhammā ca. Idaṃ vuccati bhikkhave sabbaṃ.*”

이 경전은 인식 가능한 경험의 전체를 6내처와 6외처의 12처로 규정한다. 산나가 대상의 특징(*nimitta*)을 포착하고 식별하는 인지 작용이라면, 그 작용의 범위는 이 12처가 규정하는 감각장(感覺場)에 한정된다.

이 규정은 III장의 핵심 분석 대상인 「뿌리에 대한 범문 경」(MN 1)의 인식론적 전제를 형성한다. MN 1에서 범부가 상자나띠하는 대상 목록은 SN 35.23이 규정한 ‘일체’ 안의 구체적 전개로 읽을 수 있다.

sañjānātī(*sam-√jñā*)가 감각장 안에서(*sam-*) 범주를 재적용하는 인식 작용이라면, *pajānātī*(*pa-√jñā*)와 *abhijānātī*(*abhi-√jñā*)는 이 감각장의 구조를 관통하여(*pa-/abhi-*) 직접 아는 앎이다. 이 대비가 본 연구의 인식론적 출발점이다.¹⁷⁾

조준호(2001)는 상자나띠를 일상적 인식으로, 빠자나띠를 수행적 앎으로 이분하였으나, 김준호(2011)는 자나띠(*jānātī*) 계열 용어들이 수행적 앎으로도 기능하는 용례가 다수 존재함을 지적하며 이 이분법의 단순성을 비판하였다.¹⁸⁾ 본 연구는 이 논의를 계승하되, 동사의 범주적 분류가 아닌 동사가 출현하는 서술 맥락의 구조적 분석으로 나아간다.

2. 상자나띠의 기능 정의와 두 동사의 경전 사용례

초기불교에서 산나(*saññā*, 想)는 오온 가운데 세 번째 구성 요소

17) *jānātī*(*√jñā*) 계열에는 *sañjānātī*(*sam-√jñā*), *pajānātī*(*pa-√jñā*), *abhijānātī*(*abhi-√jñā*), *parijānātī*(*pari-√jñā*), *vijānātī*(*vi-√jñā*)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sañjānātī*, *pajānātī*, *abhijānātī*의 서술적 대비에 집중한다. 어근 *sam-√jñā*에 대해 Monier-Williams(1899), 1133은 동사 첫째 의미로 “이미 합의된 범주에 귀속시키다(to agree together, be of the same opinion)”을, 다섯째 의미로 “과거 축적 범주로의 귀환(to recollect sorrowfully)”를 제시하며, 명사 *saññā*는 “a name, appellation, technical term”(의미 6) 및 불교 용법으로 “인식, 오온 중의 하나”(Dharmas. 22)를 포괄한다. PED(s.v. “*Saññā*”, 670)는 이를 “assimilation of sensations”(의미 2)으로 대응시킨다. 두 사전이 독립적으로 *sañjānātī*를 기존 범주 재적용 작용으로 확인한다.

18) 조준호(2001), 45-46; 김준호(2011), 123.

로, 감각 대상의 표상(*nimitta*)을 포착·식별하고 그것을 기존 범주에 동화시키는 인지 작용이다(산스크리트 어원 및 사전적 근거는 각주 16번 참조).

본 연구는 산냐를 단일 개념으로 취급하지 않고, 세 층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기능적 산냐는 감각 대상의 표상을 포착하고 범주화하는 인지 메커니즘 자체를 가리킨다. 둘째, 현상적 산냐는 경전 서술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분석되는 구체적 인식 양태를 의미한다. 셋째, 수행적 산냐는 전도의 교정 대상이자 수행을 통해 변화·정제되는 실천적 차원을 가리킨다.

본 연구의 ‘전도·수정·초월’ 세 서술 유형은 이 중 현상적·수행적 층위에서 산냐가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분석한다. 산냐는 오온 체계의 기술적(記述的) 개념이면서 동시에 수행 담론의 핵심 개념으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이중적 위상을 지닌다. 이러한 이해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¹⁹⁾

「삼켜버림 경」(SN 22.79)은 산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인식이라고 부르는가?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이라 한다. 푸른 것도 인식하고, 노란 것도 인식하고, 빨간 것도 인식하고, 흰 것도 인식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인식한다고(*sañjānāti*) 해서 인식(*saññā*)이라 한다.”²⁰⁾

여기서 상자나피는 이미 축적된 산냐 범주를 대상에 적용하는 재인식 작용으로 정의된다. 두 동사의 인식론적 의미 차이를 주장하려면 (1) 어원 분석 → (2) 경전 사용례 확인 → (3) 수행 담론 의미 귀납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19) Hamilton(1996); Gethin(1998); Bodhi(1993); Anālayo(2003) 참조.

20) SN III.87(SN 22.79), 「삼켜버림 경」(*Khajjanīya Sutta*); 각목스님(2009), 3권, 276.

【상자나띠 경전 사용례】 상자나띠는 니까야에서 주로 세 가지 문맥에서 나타난다. 첫째, 산냐 기능의 정의 문맥이다(「삼켜버림 경」(SN 22.79)). 둘째, 전도된 인식 문맥이다. 「전도경」(AN 4.49)에서 “무상에 대해 향상하다고, 괴로움에 대해 행복하다고, 무아에 대해 자아라고, 부정한 것에 대해 깨끗하다고 인식한다.”²¹⁾는 동일한 상자나띠 구조가 왜곡된 산냐 범주에 적용될 때 전도(*vipallāsa*)가 성립함을 보여준다. 셋째, 「뿌리에 대한 법문 경」(MN 1)에서 “땅을 땅이라는 범주로 상자나띠한다”²²⁾는 범부의 개념화 인식 구조로 사용된다. 이 셋째 사용례가 III장의 핵심 분석 대상이다.

【빠자나띠 경전 사용례】 *pajānāti*의 pa-는 ‘전진·관통’의 방향성을 담는 접두사로, 기존 산냐 범주로 수렴하는 *sam-(sañjānāti)*와 구별되는 인식 방향을 표시한다. 이 대비는 철학적 비개념주의 주장이 아니라, 경전 서술에서 두 동사가 수행 발전의 상이한 단계에 배치되는 텍스트적 패턴을 가리킨다. 이하 본 연구에서 ‘직접 앎’은 비개념적 순수 지각이라는 철학적 주장이 아니라, 경전이 수행의 진전에 따라 상자나띠 중심 서술에서 빠자나띠 중심 서술로 이행하는 양상을 포착하는 텍스트 서술 층위의 약칭이다. 빠자나띠가 *sati·paññā*와 연동하여 기능하는 수행론적 구조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빠자나띠는 니까야에서 주로 네 가지 문맥에서 나타난다. 첫째, SN 22군에서 ‘있는 그대로 안다(*yathābhūtaṃ pajānāti*)’ 또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다(*itthattāyāti pajānāti*)’는 통찰 정형구이다.²³⁾ 둘째, 「사띠 확립경」(MN 10)에서

21) AN II.52(AN 4.49), 「전도 경」(*Vipallāsa Sutta*): 대림스님(2006), 2권, 159.

22) MN I.1(MN 1), 「뿌리에 대한 법문 경」(*Mūlapariyāya Sutta*).

23) *yathābhūtaṃ pajānāti*(있는 그대로 직접 안다)는 초기경전에서 반복 출현하는 통찰 정형구로, 오온의 취착 맥락(SN III.57: 81-82; 115; 172 등) 및 사성제 맥락

행주좌와·수·심·법 사념처 전반에 걸쳐 빠자나띠가 반복 사용되는 직접 관찰 문맥이다.²⁴⁾ 셋째, 「바른 견해 경」(MN 9)에서 선·불선·연기 16주제 각각에 빠자나띠가 반복 적용되는 통찰 정형구 문맥이다.²⁵⁾ 넷째, 「차례대로 경」(MN 111)에서 “이보다 높은 벗어남이 있다고 안다.”는 선정 관찰 구문으로 9회 반복 사용된다.²⁶⁾ 이 네 가지 용례에서 빠자나띠는 일관되게 상자나띠 연쇄 밖의 수행적 앞으로 서술되며, 산나 기능 정의 맥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경전이 수행의 발전 단계에 따라 상자나띠 중심 서술에서 빠자나띠 서술로 이행하는 양상을 텍스트 층위에서 확인한 것이다.

〈표 2〉 상자나띠(범주적 재인식)와 빠자나띠(직접 앎)의 대비 구조

분석 항목	<i>sañjānāti</i> (범주적 재인식)	<i>pajānāti</i> (직접 앎)
어원 구조	sam(함께·재차) + √jñā(알다)	pa(철저히·직접) + √jñā(알다)
인식적 성격	이미 축적된 산나 범주를 대상에 적용	대상의 실상을 사전 범주 없이 직접 파악
주요 문맥	산나 기능 정의(SN 22.79), 전도 인식(AN 4.49), 개념화 인식(MN 1)	통찰 정형구(SN 22, III.24-63), 사념처(MN 10), 선·불선·연기 16주제(MN 9, I.46-55), 선정 관찰(MN 111, 9회)
개념 증식	개념적 증식(<i>papañca</i>)의 촉발점	개념 증식 연쇄 밖의 직접 앎
수행론적 위상	장애 및 토대: 전도의 근거이자 교정의 대상	해탈의 성취: 통찰 지혜(<i>paññā</i>)의 직접적 실현

(MN 1.62: 183; 279-280 등)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SN 22군에서 *pajānāti*는 ‘알지 못함(*nappajānāti*)’와 대비 구조를 이루며 오온 각각에 반복 배치되고, 이 구문은 단순한 지적 인식이 아니라 통찰지(*paññā*) 작용과 연동하는 정형 공식어로 기능한다. 이는 본 연구의 *sañjānāti* → *pajānāti* 전이 구조가 수행론적 귀결과 연동됨을 경전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지지한다.

24) MN I.55-63(MN 10), 「사띠 확립 경」(*Satipaṭṭhāna Sutta*).

25) MN I.46-55(MN 9), 「바른 견해 경」(*Sammādiṭṭhi Sutta*).

26) MN III.25-28(MN 111), 「차례대로 경」(*Anupada Sutta*); 대림스님(2012), 4권, 82-88. 해당 공식은 초선(初禪)부터 상수멸(想受滅)까지 각 단계마다 반복되며, 수행자가 현재 선정 단계를 넘어설 통찰이 있음을 직접 파악하는 구조로 기능한다. “*atthi uttari nissaraṇaṇ’ti pajānāti.*”

3. 산냐와 켜따나의 접촉 공기 구조

II-1절에서 산냐의 개념적 정의와 기능을, II-2절에서 상자나띠와 빠자나띠의 문법적·인식론적 구조를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두 동사가 초기 불교 수행론의 핵심 문헌 틀 안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검토한다. 「일체경」(SN 35.23)과 「삼켜버림 경」(SN 22.79)은 각각 ‘일체’의 범위와 ‘다섯 무더기’의 인식 구조를 통해 범주적 재인식이 작동하는 인식론적 토대를 제시하며, 이는 III장에서 분석할 MN 1의 ‘상자나띠 → 빠자나띠’ 전이 구조가 어떤 수행론적 지평 위에서 펼쳐지는지를 보여준다.

초기불교 수행 담론에서 산냐와 켜따나는 독립적 심리 기능이 아니라 상호 조건적 관계에 놓여 있다. 「두 번째 쌍 경」(SN 35.93)은 접촉을 매개로 웨다나(느낌)·켄따나·산냐가 동일한 인지 과정에서 공기(共起)하는 구조를 서술한다.

“접촉하여 느끼고 접촉하여 의식하고(*sañjānāti*) 접촉하여 의도한다(*ceteti*). 이처럼 법들 역시 움직이고 흔들리고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²⁷⁾

이 정형구는 안·이·비·설·신·의 6처 각각에 대해 동일한 순서로 반복 출현하며(SN IV.68-69, 6회), 산냐가 켜따나에 선행하는 공기 구조가 특정 감각 채널에 국한되지 않는 인지 과정 전반의 서술 구조임을 경전 내부에서 확인한다.

관정은은 접촉의 순간 발생하는 의도에 욕망이나 탐욕이 추가되지

27) SN IV.68-69(SN 35.93), 「두 번째 쌍 경」(Dutiyadvaya Sutta); 각목스님(2009), 4권, 209-210. “*Phuṭṭho bhikkhave vedeti, phuṭṭho sañjānāti, phuṭṭho ceteti, itthetepi dhammā calā ceva vyayā ca aniccā vipariṇāmino aññathā-bhāvino.*” 단, 각목스님 번역은 *sañjānāti*와 *ceteti*의 순서가 원문과 역전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는 빠알리 원문의 순서를 따른다.

않도록 의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였다.²⁸⁾ 「삼켜버림 경」(SN 22.79)은 “형성된 것을 거둬 형성한다(*saṃkhatam abhisamkharonti*)”는 구조가 산나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하며, 산나의 범주적 재생산이 켜따나 작용과 구조적으로 연동됨을 경전 내부에서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두 경전의 서술 구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SN 35.93은 산나가 켜따나에 선행함을 6처 전반의 정형구로 확인하고, SN 22.79는 형성 작용이 산나를 포함한 오온 전체를 “그것이게끔 거둬 형성한다”는 순환 구조를 명시한다. 이로부터 본 연구의 핵심 전제가 도출된다: 산나의 서술 양태 변화와 개념 증식 패턴, 켜따나 서술 강도의 연동은 접촉(*phassa*)을 공통 조건으로 삼는 세 심리 작용의 구조적 공기 관계에 근거한다.

Ⅲ장에서는 산나의 서술이 전도·수정·초월의 세 유형으로 전개되며, 각 유형에서 개념 증식 동사 분포와 켜따나 서술 강도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임을 확인한다. 전도 유형에서는 상자나띠와 개념 증식이 전경에 놓이고(Ⅲ-1·2절), 수정 유형에서는 빠자나띠가 등장하여 여전히 상자나띠가 병존하며(Ⅲ-3절), 초월 유형에서는 상자나띠가 완전히 소거되고 빠자나띠만 남는다(Ⅲ-4절). 이 세 유형의 수렴 패턴은 Ⅲ-5절에서 종합된다.

Ⅲ. 상자나띠에서 빠자나띠로의 전이 구조

초기불교 경전에서 산나는 단일한 인지 기능으로 고정되지 않고 수행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뿌리에 대한 범문 경」(MN 1)의 동사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상자나

28) 광정은(2025), 30-31.

띠에서 빠자나띠로의 전이 구조를 규명하고, AN 4.49·AN 9.16·AN 6.29·MN 121의 보조 분석을 통해 세 서술 유형을 확인한다.

1. 범주적 재인식의 구조와 개념 증식 — 「뿌리에 대한 범문 경」 「뿌리에 대한 범문 경」(MN 1)은 본 연구의 핵심 논증—상자나띠(범주적 재인식)에서 빠자나띠(직접 앎)로의 인식론적 전이—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경전 내 대비 구조를 제공한다. 이 경전은 동일한 인식 대상에 대해 범부와 바른 사람의 인식 방식을 계통적으로 대비 서술한다.²⁹⁾ 대립스님의 『맛지마 니까야』 해제에 따르면 MN 1은 대상을 보는 자를 범부·유학·아라한1/2/3/4·여래1/2의 8부류로 구분하며, 범부는 ‘상자나띠 → 4가지로 생각하고(*maññati*) → 기뻐한다(*abhinandati*)’의 연쇄를 밟는 반면, 유학부류는 만나띠와 *abhinandati*가 탈락하고 ‘철저히 알다(*parijānāti*)’ 구조로 전환된다. 본 연구는 이 8부류 계통 구분을 토대로, 경전 원문(MN I.1-6)에서 바른 사람(*sappurisa*)의 인식 동사로 명시되는 ‘최상의 지혜로 알다(*abhijānāti*)’의 전이 구조를 분석한다. 이 단계적 전환 구조는 본 연구가 분석하는 상자나띠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다(*abhijānāti*)’로의 인식론적 전이가 경전 편집 원리 자체에 내장되어 있음을 독립적으로 지지한다.³⁰⁾

MN 1은 물질적인 기초 범주인 지(地)·수(水)·화(火)·풍(風)을 비롯하여, 존재론적 범주로 생물·천신·범천·광음천·변정천·광과천·승자천, 무색계 범주로 공무변처·식무변처·무소유처·비상비비상처, 인식 대상으로 보인 것·들린 것·감각된 것·의식된 것·하나인 것·

29) MN I.1-6(MN 1), 「뿌리에 대한 범문 경」(*Mūlapariyāya Sutta*). 동사 출현 횟수는 Access to Insight(accessinsight.org) 소재 빠알리 원문을 대상으로 전수 집계하였으며, 쪽수 표기는 PTS판을 기준으로 하였다.

30) 대립스님(2012), 1권, 85-86. 대립스님은 ‘철저히 알다’를 *parijānāti*, ‘최상의 지혜로 잘 알다’를 *abhijānāti*의 번역어로 각각 사용한다. *abhijānāti* 전환 구조에 대한 분석은 저자의 견해이다.

여럿인 것·모든 것·열반에 이르는 24개 인식 대상을 열거한다. 대림스님은 이 경전이 8(보는 자)×24(대상)=192개의 범문으로 구성되며, 대상과 그것을 보는 사람의 상호의존(*paccaya*)을 뿌리에 두고 있음을 지적한다.³¹⁾

범부의 인식 과정은 두 단계로 서술된다. 첫 단계에서 범부는 “땅을 땅이라는 범주로 인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상자나띠에 이어 범부는 대상을 개념적으로 상정한다(만냐띠). 이 만냐띠 연쇄는 네 가지 형태로 반복된다:

“땅을 땅이라고 인식하고서는(*pathaviṃ pathavito saññatvā pathaviṃ maññati*), [자신을] 땅이라 생각하고(*pathaviyā maññati*), [자신을] 땅에서 생각하고(*paṭhavito maññati*), 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paṭhaviṃ meti maññati*).”³²⁾

이 네 형태의 만냐띠가 24개 인식 대상 각각에 반복 적용됨으로써 개념적 증식이 폭발적으로 전개된다. 범부 구조의 연쇄는 상자나띠(24회) → 만냐띠(96회) → 아비난다띠(24회)로 완결된다. 상자나띠와 아비난다띠가 24회로 정밀 대응하는 구조는 이 연쇄가 경전 편집 원리로 설계되었음을 수치적으로 확인한다.³³⁾ 경전은 §39에서 ‘기쁨이 괴로움의 뿌리(*nandī dukkhassa mūlanti*)’를 명시함으로써, ‘기뻐하다(*abhinandati*)’의 서술적 소거가 해탈론적 귀결과 직결됨을 경전 내부에서 선언한다.

MN 1의 ‘상자나띠 → 만냐띠’ 연쇄는 「꿀 덩어리 경」(MN 18)의 ‘상자나띠 → 개념화하다(*vitakketi*)³⁴⁾ → 개념을 증식한다(*papañceti*)’

31) 대림스님(2012), 1권, 79.

32) MN I.1(MN 1); 대림스님(2012), 1권, 139-140.

33) 범부 구조의 연쇄는 정확히는 상자나띠 → 만냐띠(×4) → 기뻐하다(*abhinandati*)로 완결된다.

연쇄와 구조적으로 대응한다.³⁵⁾ MN 1이 증식의 양적 규모(1:4)를 보여준다면, MN 18은 개념화하다(*vitakketi*)를 중간 매개로 명시하여 증식의 인지적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반면 바른 사람은 동일한 인식 대상에 대해 전혀 다른 서술 구조를 보인다. “땅을 수승하게 안다(*abhijānāti*)”의 구조로 인식하며, ‘상자나띠 → 만나띠’의 연쇄를 밟지 않는다.³⁶⁾ 아비자나띠(168회)는 유학·아라한·여래에 걸쳐 반복 출현하며, 만나띠(96회)와 같은 개념적 증식 동사가 전혀 공기하지 않는다.

abhijānāti(*abhi-√jñā*)와 *pajānāti*(*pa-√jñā*)는 접두사만 다를 뿐, 경전 사용례에서 모두 산냐 기반의 개념화 인식 연쇄 밖 통찰 인식 문맥에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포괄하여 ‘직접 앎’의 동사군으로 분류한다.

MN 1의 서술 구조는 본 연구의 세 서술 유형과 정확히 동형의 대비를 이룬다. 주목할 것은 경전이 각 부류의 인식 방식에 대해 스스로 이유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범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지 못했기 때문’, 유학(*sekha*)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아야 하기 때문’, 아라한·여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았기 때문’이 각각 배치된다.³⁷⁾ 이 세 이유 구절은 앎의 미완성→진행→완성이라는 단계적 전이를 경전 내부에서 직접 서술하는 구조로, 본 연구의 전도·수정·초월 삼분 구조가 연구자의 외부적 분류가 아니라 경전 자체의 서술 논리에 근거함을

34) *vitakketi*(*vi-√takk*)는 특정 대상을 붙들고 개념적 사유를 지속하는 작용으로, 개념 증식(*papañceti*)의 선행 단계에 해당한다.

35) 광정은(2025), 118-119; Kuan(2005), 204.

36) 유학 구간에서 만나띠는 완전히 탈락하고 *māmaññi*로 대체된다. *māmaññi*는 *mā*(금지 불변화사) + *maññā*(*maññati*의 3인칭 단수 aorist)의 결합으로, 문법적으로는 “개념화하지 않는다/개념화하지 말라”를 뜻하나, MN 1의 서술 맥락에서는 “개념적 증식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인지적·수행적 부정으로 기능한다. 이 *māmaññi* 구조는 유학 구간에서만 *nānatta* 대상이 결여되는 서술 장치와 연동되며, 두 특징은 동일한 비-대상화(non-objectification) 전략의 상보적 표현으로 이해된다.

37) SN 56.11의 빠알리 원문 및 3전 구조에 대한 해설은 각목스님(2009), 6권, 387-389. 각주 267 참조. *pariññā* 3단계와 3전의 어휘·구조적 대응은 저자의 분석이다.

독립적으로 확인한다.

범부 구조(상자나띠 → 만나띠)는 전도된 인식 서술 유형에, 바른 사람 구조는 초월된 인식 서술 유형(*abhijānāti*)에 각각 대응하며, 범부에서 바른 사람으로의 전환 과정에 해당하는 수정된 인식 서술 유형은 AN 9.16·AN 6.29가 경전적 방법론을 제공한다.

〈표 3〉 MN 1의 동사 분포 대비

구분	인식 동사	증식 동사	증식 비율	인식 방향
범부 (<i>puthujana</i>)	<i>sañjānāti</i> (24회)	<i>maññati</i> (96회)	1:4	sam- → 증식
바른 사람 (<i>sappurisa</i>)	<i>abhijānāti</i> (168회)	— (부재)	—	abhi- → 직접앞

아비자나띠는 만나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자나띠의 직접 앞이 성립할 때 만나띠 연쇄가 자연 소멸하는 구조이다.

〈표 4〉 산냐의 서술적 양태 분석표

양태	대표 경전	인식 동사(지표 1)	대상 명사(지표 2)	개념 증식 동사(지표 3)
전도	MN 1(범부)+ AN 4.49	<i>sañjānāti + maññati</i> (<i>saññāvipallāsa</i> 조건하)	24대상; 4항 왜곡	<i>maññati</i> 96회 폭발적 증식
수정	AN 9.16+ AN 6.29	<i>bhāveti</i>	9종 올바른 인식	증식 동사 부재; 결과 동사만
초월	MN 1(바른 사람)+ MN 121	<i>pajānāti/abhijānāti</i> <i>+amanasikarivā</i>	순차적 배경화	증식 기반 자체 소멸

2. 전도된 인식: 산냐 왜곡과 개념 증식의 고착

MN 1에서 확인된 상자나띠 → 만나띠 연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전

도(*vipallāsa*)로 고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경전이 「전도경」(AN 4.49)이다.

“비구들이여, 무상에 대하여 항상하다는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괴로움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무아에 대해서 자아라는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 부정한 것에 대해 청정하다는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가 있다.”³⁸⁾

여기서 전도가 산냐 → 마음 → 견해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서술 구조가 주목된다. 산냐의 전도가 마음의 전도, 나아가 견해의 전도로 이어지는 연쇄 구조로 서술됨으로써, 산냐가 인식 왜곡의 출발점으로 기능함을 경전이 명시한다.

이 전도 구조는 MN 1의 범부 구조와 직접 연결된다. MN 1에서 상자나띠 → 만냐띠의 개념 증식이 무규정적으로 전개되는 반면, AN 4.49는 이 증식이 4항 왜곡 대상—무상(*anicca*)↔항상(*nicca*), 고(*dukkha*)↔행복(*sukha*), 무아(*anattā*)↔자아(*attā*), 부정(*asubha*)↔청정(*subha*)—에 고착되는 양상을 서술한다. MN 1이 개념 증식의 양적 규모를 보여준다면, AN 4.49는 그 증식이 어떤 인식 왜곡으로 고착되는지를 규명한다.

「아난다 경」(SN 8.4)은 이러한 산냐의 전도가 강렬한 번뇌와 직결됨을 서술한다. 산냐가 전도되었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은 불붙었다며 애욕을 유발하는 아름다운 표상의 제거를 촉구한다.³⁹⁾ 「몸 경」(SN

38) AN II.52(AN 4.49), 「전도 경」(*Vipallāsa Sutta*); 대림스님(2006), 2권, 159. “*Anicce bhikkhave niccanti saññā-vipallāso cittavipallāso diṭṭhivipallāso; Dukkhe sukhanti saññā-vipallāso cittavipallāso diṭṭhivipallāso; Anattani attāti saññā-vipallāso cittavipallāso diṭṭhivipallāso; asubhe subhanti saññā-vipallāso cittavipallāso diṭṭhivipallāso.*”

39) SN I.188(SN 8.4), 「아난다 경」(*Ānanda Sutta*); 각목스님(2009), 1권, 611.

46.2)에 따르면 아름다운 표상에 대한 이치에 맞지 않는 작의(*ayoniso manasikāra*)가 감각적 욕망을 발생·증장시킨다.⁴⁰⁾ 「삿짜까 긴 경」(MN 36)에서 강압 3동사(*abhiniggaṇhāti, abhisantāpeti, abhinimmaddati*)의 밀집 배치는 전도된 산나와 동일한 서술 맥락을 공유한다. 세 지표는 왜곡된 범주적 재인식과 개념적 과잉이라는 동일 방향으로 수렴한다.

3. 수정된 인식: 올바른 산나의 닻

MN 1의 범부 구조(상자나띠 → 만나띠)가 보여주는 개념 증식 연쇄를 교정하는 경전적 방법론을 가장 명확하게 서술하는 경전이 「인식 경」(AN 9.16)이다.

“부정(不淨)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saññā*), 죽음에 대한 인식, 음식에 혐오하는 인식,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인식, [오온에 대해] 무상(無常)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무상한 [오온에 대해] 괴로움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괴로움인 [오온에 대해] 무아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버림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탐욕이 빛바램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아홉 가지 인식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不死)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한다.”⁴¹⁾

주목할 것은, “닦고 많이 반복하면(*bhāvitā bahulīkatā*)”이라는 수행 동사가 전경에 배치되지만, MN 1에서 관찰된 상자나띠 →

40) SN V.64(SN 46.2), 「몸 경(*Kāya Sutta*)」; 각목스님(2009), 5권, 291-293.

41) AN IV.387(AN 9.16), 「인식 경」(*Saññā Sutta*); 대림스님(2006), 5권, 412. “*Asubhasaññā, maraṇasaññā, āhāre paṭikūlasaññā, sabbaloke anabhiratasaññā, aniccasaññā, anicce dukkhasaññā, dukkhe anattasaññā, pahānasaññā, virāgasaññā — imā kho, bhikkhave, nava saññā, bhāvitā bahulīkatā mahapphalā honti mahānisamsā amatogadhā amatapariyosānā.*”

만나며 증식 연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과 표현으로는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고 불사에 들어가고 불사를 완성한다”만 배치될 뿐, 수행의 완성 지점에서는 만나띠나 ‘개념을 증식한다(*papañceti*)’와 같은 동사는 부재한다.

뉘다(*bhāveti*)·많이 반복하다(*bahulikata*)라는 수행 동사 안에 수행자의 의도적 지향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강압적 개입을 서술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수행 동사 안에 의도적 지향성이 내포되는 서술 구조이다. 이와 동일한 서술 구조는 「우다이 경」(AN 6.29)의 광명상(*āloka-saññā*) 서술에서도 확인된다.⁴²⁾ 세 지표는 올바른 산냐의 뉘음과 개념 증식 중단이라는 동일 방향으로 수렴한다.

이러한 “뉘고 많이 반복하면” 서술 구조는 초기불전에서 정형화된 산냐 목록으로 확장된다. 김준호(2011)는 7상·9상 목록이 독립적 수행으로 기능하며,⁴³⁾ DN 9를 통해 선정 단계마다 이전 산냐가 소멸하고 정제된 산냐가 생성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AN 9.16의 9종 산냐 목록은 이 정형화 체계 안에 위치하며, “뉘고 많이 반복하면”라는 수행 동사를 매개로 동일한 서술 논리를 구현한다. 한편 「폴리따의 경」(SN 21.1)에서는 2선정 성취 후에도 ‘일으킨 생각이 함께한 인식과 작의’가 잔존하여 수행자를 괴롭힌다는 서술이 나타나, 산냐 정제가 점진적이며 미세한 수준까지 요구되는 과정임을 확인시킨다.

4. 초월된 인식: 산냐 배경화와 직접 앞으로의 이행

「소공경」(MN 121)에서 바른 사람의 ‘수승하게 안다(*abhiñānāti*)’

42) AN III.323(AN 6.29), 「우다이 경」(*Udāyī Sutta*); 대림스님(2006), 4권, 121.

43) 김준호(2011), 132-133. PED(s.v. “*Saññā*”, 670)는 수행적 산냐의 사전적 근거로 7종(*anicca-*, *anatta-*, *asubha-*, *ādinava-*, *pahāna-*, *virāga-*, *nirodha-saññā*; DN II.79) 및 10종(AN V.105) 목록을 제시하며, 이 맥락에서 *saññā*를 “awareness”(의미 2, A III.443)로 규정한다. 이는 *saññā*가 전도의 기반이면서 동시에 수행 도구로 기능하는 이중적 위상을 사전 층위에서 독립적으로 확인한다.

구조가 보여주는 직접 앎이 실제 수행 담론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서술하는 경전이 「소공경」이다.

“그와 같이 비구도 마을에 대한 인식을 마음에 잡도리하지 않고 (*amanasikaritvā gāmasaññaṃ*), 사람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도리하지 않고 숲이라는 인식 하나만을 마음에 잡도리한다.”⁴⁴⁾

이 서술 구조에서는 MN 1의 범부 구조가 보여주는 상자나띠 → 만나띠 연쇄의 기반 자체가 소거된다. 산냐가 순차적으로 배경화되면 상자나띠가 작동할 범주적 대상이 사라지고, 따라서 만나띠의 증식도 발생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산냐 배경화와 개념 증식 기반의 소거가 쩌따나의 서술적 배경화와 구조적으로 연동된다는 점이 III-5절에서 검토된다. 세 지표는 산냐 배경화와 증식 기반 소거라는 동일 방향으로 수렴한다.

MN 121이 “귀결점”으로 기능하는 것은 단순히 산냐가 소거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소거가 단계적 반복 서식을 통해 경전 내부에 구조적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경전은 마을·사람에서 시작하여 숲·땅 산냐를 거쳐 공무변처·식무변처·무소유처·비상비비상처 산냐에 이르기까지 7단계에 걸쳐 동일한 서식을 반복한다.

각 단계의 서식은 다음 구조로 구성된다: (1) 이전 두 산냐를 작의하지 않음(*amanasikaritvā*), (2) 현재 산냐에 마음이 안착함, (3) 이전 산냐의 동요는 없고 현재 단계의 잔여 동요만 있음을 직접 앎(≠*자나띠*), (4) 공성 관찰(*suññaṃ samanupassatī*).

이 반복 서식은 MN 1의 만나띠 반복 구조와 대칭을 이룬다. MN

44) MN III.104(MN 121), 「소공경」(*Cūḷasuññata Sutta*): 대림스님(2012), 4권, 233-234. “*Evameva kho ānanda, bhikkhu amanasikaritvā gāmasaññaṃ, amanasikaritvā manussasaññaṃ, araññasaññaṃ paṭicca manasikarotī ekattaṃ.*”

1에서 상자나띠 하나가 만나띠 네 형태를 촉발하는 방식으로 증식이 반복되었다면, MN 121에서는 부작의(*amanasikaritvā*)가 7단계를 관통하며 반복됨으로써 소거가 구현된다. 증식(MN 1)과 소거(MN 121)는 동일한 반복 서술 기법을 정반대 방향으로 사용하는 대칭 구조이다. 이 대칭은 두 경전의 연결을 외부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경전 내부의 서술 기법이 동일한 구조적 논리를 공유함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MN 1에서 상자나띠(24회)가 만나띠(96회) 증식을 촉발하는 것이 범부의 서술 구조라면, MN 121에서 부작의(*amanasikaritvā*)가 7단계를 관통하며 산냐를 순차적으로 소거하는 것은 그 역방향의 서술 구조이다. 전자가 범주적 대상의 명시적 열거를 통해 증식을 전경화한다면, 후자는 대상의 순차적 배경화를 통해 증식의 기반 자체를 해체한다. 두 경전은 동일한 서술 원리의 양극단을 구현하며, 이 점에서 MN 121은 MN 1이 개시한 인식론적 전이의 귀결점으로 기능한다.

주목할 것은 각 단계에서 빠자나띠가 수행하는 이중 기능이다. 이 점에서 부작의는 인식의 단절이 아니다. 각 단계의 서식은 이전 산냐를 작의하지 않는 동시에 현재 단계의 산냐를 전경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식이 소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범주적 대상에 대한 산냐가 배경화되고 현재 단계의 산냐가 빠자나띠의 직접 앞 안에서 작동한다. 이는 MN 121의 산냐 배경화가 인식 능력의 퇴행이 아니라 고도로 정제된 인식의 변용임을 경전 서술 구조 자체가 보여주는 근거이다. 빠자나띠는 이전 산냐의 동요(*daratha*) 부재와 현재 단계의 ‘어느 정도의 동요(*darathamattā*) 존재를 동시에 확인한다. 이는 빠자나띠가 단순히 “직접 안다”는 인식 작용이 아니라, 각 단계를 판단하고 판별하는 기능을 병행함으로써 공성 진입을 인식론적으로 매개함을 보여준다.

7단계를 거쳐 ‘표상없는 마음의 삼매(*animittaṃ cetosamādhī*)’

에 이른 후, 경전은 반복 서식을 단절하고 새로운 서술로 전환한다. “이 표상없는 마음의 삼매도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무엇이든 무상하고 소멸하는 법이다”⁴⁵⁾라는 통찰이 발생하고, 3루(漏) — 욕루(*kāmāsava*)·유루(*bhavāsava*)·무명루(*avijjāsava*) — 의 해탈로 귀결된다.⁴⁶⁾ 이 마지막 단계의 공성 진입 정형구에만 “위없이 수승한(*paramānuttarā*)”이 추가됨으로써, 경전은 이 귀결점의 위상을 서술적으로 명시한다.

범부·유학·여래 각 단계에서 확인된 인식론적 전이는 MN 1의 종결 구문에서 정서적 차원으로 완결된다. 이 경전은 “비구들은 기뻐하지 않았다(*nābhinanduntī*)”로 끝나는데, 이는 니까야 경전의 일반적 종결 방식인 “비구들은 기뻐하며 환희하였다”와 정반대다.

이 이례적 종결은 MN 1 전체의 서술 전략을 완성하는 마지막 장치로 기능한다. 범부 단계에서 “상자나띠 → 만나띠 → 아비난다띠(기뻐한다)”의 연쇄가 개념 증식의 정서적 결과로 제시되었다면, 여래 단계에서 아비자나띠(직접 앎)는 이 정서적 반응 자체를 소거하는 인식 구조로 완결된다. 즉 ‘기뻐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수사적 장치가 아니라, 초월 유형에서 인식론적 전이가 정서적 차원까지 관통했음을 보여주는 서술적 증거이다.

5. 세 지표의 수렴과 켜따나 서술 강도의 대응

본 연구는 III장에서 확인한 세 서술 유형(전도·수정·초월)이 산나의 인식론적 전이와 연동될 때, 켜따나 서술 방식에도 구조적 변화가 관찰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전도 유형에서는 의도 어휘가 인식 서술

45) MN III.108; 대립스님(2012), 4권, 241. “*ayampi kho animitto cetosamādhī abhisañkhato ābhisañcetasiko yaṃ kho pana kiñci abhisañkhatam ābhisañcetasikaṃ, tadaniccaṃ nirodhadhamma*”

46) MN III.108; 대립스님(2012), 4권, 242-243.

의 문법적 전면에 배치되는 경향이, 수정 유형에서는 수행 동사 안에 의도적 지향성이 내포되는 경향이, 초월 유형에서는 의도 어휘가 배경화되는 경향이 각각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세 지표의 수렴 패턴과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살펴본다. III장의 분석에서 세 지표는 세 서술 유형 모두에 걸쳐 동일한 방향으로 수렴하였으며, 제따나 서술 방식 또한 이 전이 방향과 병행하는 패턴을 보인다. 다만 이 대응 구조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경전 서술 패턴이며, 제따나와 산냐의 연동 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 분석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표 5〉 세 서술 유형에 걸친 지표별 이동 종합⁴⁷⁾

분석 항목	전도(顛倒)	수정(修正)	초월(超越)
MN 1 대응	범부: <i>sañjānāti</i> → <i>maññati</i>	(전환 지대)	바른 사람: <i>abhijānāti</i>
지표 1: 인식 동사	<i>sañjānāti</i> + <i>maññati</i> (<i>saññāvīpallāsa</i> 조건하)	<i>bhāveti</i>	<i>pajānāti</i> + <i>abhijānāti</i>
지표 2: 대상 명시	24대상/4항 왜곡	9종 올바른 인식	순차적 배경화
지표 3: 개념 증식	<i>maññati</i> 96회 폭발	증식 동사 부재	증식 기반 소거
작의 구조	<i>ayoniso manasikāra</i> (SN 46.2)	(전환)	<i>amanasikāra</i> (MN 121)
MN1 대응	범부: <i>sañjānāti</i> → <i>maññati</i>	유학: <i>abhijānāti</i> → <i>māmaññi</i>	아라한: <i>abhijānāti</i> → <i>na maññati</i>
대표 경전	MN 1(범부) +AN 4.49	AN 9.16 +AN 6.29	MN 1(아라한) +MN 121

47) 전도 유형의 이치에 맞지 않는 작의(*ayoniso manasikāra*, SN 46.2)와 초월 유형의 작의하지 않음(MN 121의 *amanasikāra*, MN 1의 *na maññati*)는 작의 구조의 대칭을 이루며, 이는 세 유형의 순차적 서술 논리를 텍스트 내부에서 확인하는 근거이다.

째따나 서술 강도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서술 패턴을 기술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 분류의 경전적 보편성 및 산냐와의 인과적 연동 관계는 향후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 종합표에서 주목할 것은 세 지표의 이동 방향이 수평적으로 정렬된다는 점이다. 지표 1에서 인식 동사가 ‘상자나띠 → 바웨띠 (*bhāveti*) → 빠자나띠’로 이동할 때, 지표 2의 대상은 ‘범주적 열거 → 수행 목록 → 순차적 배경화’로, 지표 3의 개념 증식 패턴은 ‘폭발적 증식 → 증식 부재 → 증식 기반 소거’로 각각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인식 동사 스펙트럼과 개념 증식 패턴의 연동을 정리하면, 상자나띠 기반의 범주적 재인식이 전경에 놓일 때 개념 증식은 폭발적으로 전개되며(MN 1, III-1절 참조), 올바른 산냐의 반복적 ‘답음 (*bhāveti*)’이 전경에 놓일 때 증식 동사는 서술에서 사라지고 결과 동사만 남으며(AN 9.16의 *mahapphalā honti*), 산냐 자체가 순차적으로 배경화될 때 증식의 기반 자체가 자연 소멸된(MN 1 아라한의 *na maññati* 구조). 이 패턴은 상자나띠 기반의 범주적 재인식이 약화될수록 개념 증식이 감소하고 직접 앞이 전경화되는 인식론적 전이 구조를 반영한다.

「몸 경」(SN 46.2)의 ‘이치에 맞지 않는 작의(*ayoniso manasikāra*)’가 전도 유형의 개념 증식을 심화한다면, MN 121의 ‘부작의(*amanasikāra*)’는 초월 유형에서 증식의 기반을 소거하는 서술적 조건으로 기능한다. 이 대칭 구조는 세 유형의 순차적 서술 논리를 텍스트 내부에서 확인하는 근거이다. 세 지표의 수렴 패턴은 전도·수정·초월 세 유형이 서술 논리상 순차적 전개임을 확인하는 근거이다. 세 지표의 독립성은 SN 22.79(지표 1 활성화·지표 3 부재)와 AN 9.16(지표 2 활성화·지표 3 부재)의 대조 사례를 통해 경전 내부에서 검증된다(I-2절 참조).

째따나의 목적이 특정 산냐를 형성하는 데 있다면, 올바른 산냐가 확립된 상태에서는 째따나가 거칠게 개입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 분석은 째따나 ‘약(弱)’ 범주가 의지의 부재가 아님을 보여준다. 강(強)이 왜곡된 산냐를 제압하려는 의도의 적극적 개입이라면, 약(弱)은 올바른 산냐의 흐름 안에서 강압적 의도를 내려놓고 인지 과정을 통찰적 논리에 맡기는 성숙한 의도의 최소화이다. 이는 째따나의 소멸이 아니라, 왜곡된 산냐를 교정하는 거친 의도적 개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을 뜻한다.

이상의 전환이 가능해질 때 수행자는 상자나띠 기반 재인식의 한계를 넘어 빠자나띠의 영역으로 이행한다. 지혜(*paññā*)와 빠자나띠(*pajānāti*)가 동일 어근($pa-\sqrt{jñā}$)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이 이행이 초기불교 수행론의 궁극적 지향—통찰 지혜의 개발—과 직결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세 지표 가운데 어느 하나만 충족되거나 방향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유형 분류를 유보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되는 인식론적 전이 패턴은 측정론적 상관관계나 인과법칙이 아니라 해석적 모델로 제안된다.

IV.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초기불교 경전에서 범주적 재인식(*sañjānāti*)에서 직접 앎(*pajānāti*)으로의 인식론적 전이 구조를 문헌학적으로 분석하였다. MN 1의 동사 분포 분석을 통해 범부의 개념 증식 연쇄와 바른 사람의 직접 앎 구조를 실증하고, 이 대비 구조가 산냐의 세 서술 유형—전도·수정·초월—과 동형을 이루며 째따나 서술 강도와 연동함을

확인하였다. 세 독립 지표의 수렴으로 이 대응 구조가 입증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경전의 서술 구조 분석에 한정되며, 이를 실제 인지 과정의 이론으로 확장하지 않는다.

2. 연구의 학문적 의의

첫째, MN 1을 산냐의 인식론적 전이 구조의 관점에서 재독해하였다. 기존 연구가 MN 1을 범부와 성자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교리적 텍스트로 읽은 반면, 본 연구는 이 경전의 동사 분포를 수치적으로 분석하여 전이 구조가 경전 서술에 내장되어 있음을 실증하였다. 둘째, 개념 증식(*papañca*) 동사의 분포를 삼각검증의 독립 지표로 도입하여, 인식 주체의 행위 동사(지표 1)와 인식 결과의 파생 동사(지표 3)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세 독립 지표가 동일 경전(MN 121)에서 수렴한다는 삼각검증의 귀결은, 초기불교 수행 담론의 핵심 개념들이 보다 체계적인 서술 구조를 이루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가 방법론적으로 배제한 주석서(*Aṭṭhakathā*) 전통 및 후기 아비담마 문헌에서의 산냐 서술과의 비교, 그리고 본 연구의 세 서술 유형 분석틀을 DN·SN·Dhp 등 다른 경전군에 적용하는 작업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특히 MN 1에서 확인된 아비자나띠와 빠자나띠의 기능적 동형성이 다른 경전군에서도 유지되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띠(*sati*)·뻬냐(*paññā*) 등 인접 인지 개념들과의 서술적 상호작용으로 확장하는 것도 후속 연구의 과제이다. 특히 사띠가 *sañjānāti*에서 *pajānāti*로의 전이를 추동하는 서술적 기제로서 어떻게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는지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며, 이에 대한 체계적 검토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특히 「꿀 텅어리 경」(MN 18)의 *papañca-saññā-saṅkhā* 구조와 본 연구의 *sañjānāti*→*maññati* 연쇄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며, 이에 대한 체계적 검토는 후속 연구의 핵심 과제로 남긴다. 또한 MN 1에서 아라한 구간이 탐·진·치 삼독의 소멸을 동일한 *abhijānāti* → *na maññati* 연쇄로 세 차례 반복 서술하는 구조가, 본 연구의 지표 3(개념 증식 동사의 소거)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삼독의 순차적 해소 과정과 연동됨을 시사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관찰한 산나 서술 유형과 켜따나 서술 방식의 대응 패턴은, 독립적 후속 연구 과제로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나와 켜따나의 공기(共起) 빈도 및 서술 밀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이 선행되어야 하며, 심소(*cetasika*) 상호작용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 분석들의 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 방향의 연구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그 기여를 한정한다.

참고문헌

1. 약호 및 원전류

AN *Aṅguttaranikāya*, 5 vols., PTS.

MN *Majjhimanikāya*, 3 vols., PTS.

SN *Samyuttanikāya*, 5 vols., PTS.

DN *Dīghanikāya*, 3 vols., PTS.

PED The Pāli Text Society's *Pāli-English Dictionary*, PTS.

Monier-Williams, Monier. 1899. *A Sanskrit-English Dictionary: Etymologically and Philologically Arranged with Special Reference to Cognate Indo-European Languages*. Oxford: Clarendon Press.

2. 단행본 및 논문류

각목스님 역(2009), 『상웃따 니까야』 1-6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곽정은(2025), 『초기불교 수행의 의도 역할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준호(2003), 「초기불교의 산나(*saññā*)개념과 오온설(五蘊說)」, 『대동철학』 20, .

_____(2011), 「초기불전에 나타난 산나(*saññā* 想) 개념의 위상」, 『불교학리뷰』 9, 불교 문화연구소.

대립스님 역(2006), 『양긔따라 니까야』 전6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_____(2012), 『맛지마 니까야』 1권, 4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박재은(2021), 「갈애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일고찰」, 『한국불교학』 99, 한국불교학회.

임승택(2007), 「업(*karma*) 개념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 103, 대한철학회.

이필원(2015), 「초기불교의 연기이해- 수행론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접근」, 『불교학보』 72, 불교문화연구원.

조준호(2001), 「위빠사나의 인식론적 근거」, 『보조사상』 16, 보조사상연구원.

함형석(2018), 「문헌 독해 방법으로서의 텍스트 인코딩」, 『한국불교학』 86, 한국불교학회.

Anālayo, Bhikkhu(2003), *Satipaṭṭhāna: The Direct Path to Realization*, Birmingham: Windhorse.

Bodhi, Bhikkhu(1993), *A Comprehensive Manual of Abhidhamma*,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Denzin, Norman K.(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ew York: McGraw-Hill.

- Firbas, Jan.(199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in Written and Spoken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thin, Rupert(1998), *The Foundations of Buddh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lliday, M. A. K.(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2nd ed., London: Edward Arnold.
- Hamilton, Sue.(1996), *Identity and Experience: The Constitution of the Human Being According to Early Buddhism*, London: Luzac Oriental.
- Hopper, Paul J.(1979), "Aspect and Foregrounding in Discourse." In *Syntax and Semantics*, vol. 12, edited by Talmy Givón, New York: Academic Press.
- Kuan, Tse-fu.(2005), 「*Saññā and Sati*」, 『正觀雜誌』 32.
- (2008), *Mindfulness in Early Buddhism: New Approaches Through Psychology and Textual Analysis of Pali, Chinese and Sanskrit Sourc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Langacker, Ronald W.(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ume I: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ukařovský, Jan(1964), "Standard Language and Poetic Language." In Paul L. Garvin (ed.), *A Prague School Reader on Esthetics, Literary Structure, and Style*, 17-30.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2).
- Torrance, Harry(2012), "Triangulation, Respondent Validation,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in Mixed Methods Research." *Journal of Mixed Methods Research* 6, no. 2.

The Epistemological Transition of *saññā* in
Early Buddhist Texts
- Focusing on the Descriptive Shift from
sañjānāti to *pajānāti* -

성함
(법명)
직위
소속

This study philologically examines how the epistemological transition from *sañjānāti* (categorical re-cognition) to *pajānāti* (direct knowing) is embedded in early Buddhist texts. Through a verb-distribution analysis of the *Mūlapariyāya Sutta* (MN 1),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ordinary person's (*puthujjana*) *sañjānāti* → *maññati* sequence constitutes the epistemological mechanism of conceptual proliferation (*papañca*), while the good person's (*sappurisa*) *abhijānāti* structure represents direct knowing that bypasses this proliferative sequence. The analysis employs a triangulation of three independent textual indicators: (1) types of cognitive verbs, (2) degree of explicit object specification, and (3) distribution of conceptual proliferation (*papañca*) verbs. Building on a preceding study that analyzed the gradient structure of *cetanā* (volition), this study applies the same triangulation framework to *saññā*.

The analysis identifies three descriptive modes of *saññā*. dis-

torted perception (*vipallāsa*), cultivated perception (*bhāvitā bahulīkatā*), and transcendence (*amanasikāra*). The findings reveal an epistemological transition structure in which the weakening of *sañjānāti*-based categorical re-cognition corresponds to diminishing conceptual proliferation and the foregrounding of direct knowing (*pajānāti*). This transition structure converges in the *Cūḷasuññata Sutta* (MN 121), where the gradual backgrounding of *saññā* and the elimination of *papañca* verbs occur simultaneously.

By conducting a textual-structural analysis that existing studies—focused primarily on the conceptual definition and psychological role of *saññā*—had not addressed,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verb distribution of MN 1 structurally encodes the epistemological transition within the text itself, and proposes the methodological contribution of introducing the distribution of *papañca* verbs as an independent triangulation indicator. This approach offers a broader understanding of essential vocabulary in early Buddhist texts.

Keywords

saññā, *sañjānāti*, *pajānāti*, conceptual proliferation (*papañca*), perceptual distortion (*vipallāsa*)

논문투고일: 0000. 0. 00.	심사완료일: 0000. 0. 00.	게재확정일: 0000. 0. 00.
---------------------	---------------------	---------------------